

고실업사태에 대비하는 고용보험의 운영이 필요하다

박 덕 제*

고용보험제도 출범 당시의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까운 장래에 고실업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1996년 현재 2.0%의 실업률로 통계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져 1997년에 2.3~2.5% 수준에 이를 것으로 각 연구기관이 추정하고 있다. 이런 고실업 조짐은 작년부터 이미 명예퇴직의 확산과 중년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노동관계법 정리해고 조항을 둘러싼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고실업의 원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연유하는데, 1997년 이후에는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6%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실업사태를 예방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운영에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여건이 향상되어야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당초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 및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요율의 인하, 대기업에 적용되는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폐지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으로의 통합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나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고용증가 및 안정에 관한 그 효과는 과장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에 관한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측의 직접적 주문에 기초하지 않은 막연한 기능 위주 공공훈련은 훈련생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 특히 취업 이후에 실시되는 현장훈련은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에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방송통신대학 경제학과 교수

실시하려고 하는 3D직종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이나 인력난이 심한 직종을 훈련시키는 훈련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은 자칫하면 자금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훈련 수료자가 취업하지 않거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과 불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난이 심한 분야의 취업 및 현장훈련지원금으로 이 재원을 이용한다면 실제효과는 더 클 것이다.

취업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산업 및 직업구조가 급속히 바뀌고, 중년에 중도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빈자리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쉽게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 구직자에게 제시되는 일자리는 자신이 과거에 종사했던 직무와 다르거나, 직책 및 임금이 깎이는 하향취업을 하거나, 고령자가 신참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구직자가 심리적인 위축감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적극적 상담활동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원에서도 이러한 취업 및 진로 상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담활동은 인력은행과 같은 직업소개소만이 아니라 훈련원이나 학교, 특히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장기간의 훈련으로 높은 기능수준을 갖춘 인력이 아니라, 봉투에 수신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할 줄 알고, 공정 및 제품 취급상의 주의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근로자, 소위 기본이 충실한 근로자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비싼 장비로 장기간 실시되는 훈련만을 좋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직장생활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갖추어 주는 훈련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상담 및 현장훈련과 결합된다면 교실이나 실습실 훈련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